



# 使用法과 修治法

學術委副委員長 · 李 麟 星  
(全南 사거리 韓藥房)

## • 차 례

緒 言

本 論

### 1. 使用法

- (1) 服用時間
- (2) 服用方法
- (3) 服用回數
- (4) 煎湯法
- (5) 忌口(禁忌)

### 2 丕炙論

- (1) 總說
- (2) 方藥
- (3) 劑型
- (4) 煎湯法
- (5) 바른 服用法
- (6) 修治法

結 語

## • 緒 言

韓藥의 바른 使用法과 丕炙法(修治法)에 對해서 복습하는 時間을 갖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약에 대한 기초지식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챙겨 보는 것도 그리 무의미 하지는 않을 것이다. 96년도 전남 보수교육 교재로 사용하였던 것을 증보하고 재정리하여 참고에 資하고자 한다. 本論에 들어가기에 앞서 丕炙法中 의 炙字에 대해서 잠깐 짚어 볼까 한다. 우리는 大體로 炙字 代身 灸字를 使用하여 灸甘草 또는 黃기蜜灸 등으로 불려 왔는데 그것이 잘못 이었다는 것이 여러 문헌에서 지적 되고있다. 灸字는 주로 鍼灸 를 呼稱할 때 뜸뜸 灸字로 使用 하여야 옳고, 구어서 쓰는 것은 고기 볶을 炙字를 써서 灸甘草, 黃기蜜灸 등으로 불려야 옳다는 것이다. 또 이 炙字는 "적" 으로서도 發音하는데 祭祀床에 놓는 積(炙) 도 바로 이 字를 쓰는 것이다. 藥品은 飮食이 아니기 때문에 자(炙)字로 하여 灸甘草 아닌

## □ 학 술

炙甘草로 呼稱하는 것이 옳다고 한다. 때문에 本原稿에서는 자(炙)字로 統一하여 포炙法으로 하겠음을 미리 밝혀둔다.

韓藥의 使用法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어떻게, 어떤 時間에, 어떻게 使用하는 것이 올바른 使用法이고 效果를 極大化시킬 수 있는 方法인지 알아보고, 아울러 포炙法은 또 어떻게 하여야 올바른 方法인지도 함께 復習해 보도록 한다.

포炙法의 由來는 異說이 있지만 皇帝의 臣이라고 일러지는 雷敷에 衣해서 創始 되었다고 하는 것이 通說로 되어 있다 卽 雷公포炙法論이 그것이란 것이다 그러면서도 또 中國 南北朝 劉宋時代에 또 다른 雷公이 이것을 主唱하였다고 어떤 學說은 異論을 提起하고 있어 雷公에 對한 正確한 年代는 確認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現實인 것이다.

오늘은 그런 것들을 究明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지 않고 文獻에 나와 있는 藥의 使用法과 修製 修治法에 對해서 다시 짚어 보면서 여러 會員님과 함께 復習하기로 한다.

### • 本 論

#### 1. 使用法

患者가 服藥할 때 그 服用하는 時間에 따라서 藥力을 無力化시킬 수도 있고, 極大化시킬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그 學說 또한 異說이 있긴 하지만 복용시간에 대한 그 大綱부터 아래에 들어 보기로 한다.

##### (1) 服用 時間

- ① 病이 橫膈膜以上에서 頭部사이에 있으면 食後에 徐徐히 量을 적게 하여 자주 服用한다.
- ② 病이 橫膈膜(心腹)以下에서 臍部(中焦)사이에 있으면 食遠服(一云 食間服) 한다.
- ③ 病이 臍以下에서 足部사이면 空心(食前)에 多量頓服 하여 藥力이 下體에 이르게 한다.
- ④ 病이 四肢및 血脈에 있으면 飲食을 배 고프게 먹고, 早晨 . 空腹時 (一云 낮)에 服用한다.
- ⑤ 病이 骨髓에 있으면 飲食을 배부르게 먹고 밤에 服用한다.
- ⑥ 嘔吐로 藥을 넘기기 어려우면 천천히 一匙로부터 조금씩 넘겨야 하며 急하게 服用하여서는 안된다. 嘔吐약은 溫服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
- ⑦ 조금씩 服用하게 하는 것은 身半上體에로 滋養, 營養하게 함이다
- ⑧ 한번에 多服하게 하는 것은 身半下體에로 峻補하게 하는데 目的이 있다.
- ⑨ 補腎의 藥은 반드시 밤중의 말하기 前, 腎氣가 열렸을때 먹는 것이 좋다.
- ⑩ 陰虛 血虛 不眠 多夢등을 치료할 때는 잠자기전에 복용한다.

- ⑪ 氣虛 腎陽虛 瘀結등을 치료할때는 晨間에 1회 頓服 한다
- ⑫ 虐疾 을 치료 하려면 발작 2시간전에 복약하여야 한다
- ⑬ 腸管의 寄生蟲병을 치료하려면 마땅히 早晚 : 空腹시에 복용한다.
- ⑭ 休息痢를 치료하려면 마땅히 五更 (寅時) 에 복용한다.
- ⑮ 哮喘병을 치료하려면 마땅히 發作 30분전에 服用한다.
- ⑯ 痰飲 濕濁 등을 치료하려면 마땅히 食後에 복용한다. 그래야 藥力이 水穀의 氣를 따라 올라가 痰飲과 濕濁을 없애는 것이다.
- ⑰ 月經病을 치료하려면 월경이 오기 4~5일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 ⑱ 脾胃 虛弱을 치료하려면 不飢不飽시에 복용하여야 충분히 흡수되게 된다.
- ⑲ 急證을 치료할때는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수시로 복용한다.
- ⑳ 大體로 服藥後에는 6시간이 지나서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좋다.
- ㉑ 服藥後 곧 잠자리에 드는 것도 좋지 않으니 이는 藥氣를 循行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위를 다음과 같이 간추려 종합할 수 있다.

- 一. 補陽藥, 行水利濕藥, 催吐藥 등은 清晨에 복용하여야 한다.
- 二. 發汗 解表藥, 益氣 升陽藥등은 午前에 복용하여야 한다
- 三. 瀉下藥, 滋陽陰血藥등은 入夜에 복용하여야 한다.
- 四. 安神藥은 夜臥에 복용하여야 한다.

이를 略言하면 升提外透藥은 오전에 복용하는 것이 좋고, 沈降下行藥은 오후복용이 좋다. 溫陽補氣藥은 清晨에서 오전사이가 좋고, 滋陽陰血하는 약은 入夜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 陽分, 氣分の 邪를 제거하는 약은 清晨이 좋고, 陰分 伏火를 清泄하는 약은 入夜복용이 좋다

## (2) 服用方法

煎劑를 服用하는 데는 冷服, 熱服, 溫服의 세 가지方法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發汗을 要할 경우와 陰虛證에 身體를 溫暖하게 할 때는 溫服하여야 한다.
- ② 熱厥證으로 陽明經의 熱을 除去하려 할 때는 冷服하여야 한다.
- ③ 嘔吐證이 있을때는 冷服을 하여야 하는데 甚하면 먼저 生薑을 조금씩 씹어 먹거나, 또는 生薑으로 擦舌하고나서 복용한다 (附子를 加하여 煎湯한 것은 中毒을 念慮하여 冷服할 경우도 있다.)
- ④ 一般的으로 慢性病者는 溫服이나 또 冷服도 할 수 있지만 溫服하는 편이 더 좋다.

## □ 학 술

- ⑤ 寒證을 치료하려고 熱藥을 使用할때는 溫服한다.
- ⑥ 熱證을 치료하려고 涼藥을 使用할때는 冷服한다.
- ⑦ 中和劑는 溫服한다
- ⑧ 眞寒假熱을 치료하려면 冷服하는 것이 좋다. (白通湯類)
- ⑨ 眞熱假熱을 치료하려면 熱服하는 것이 좋다. (白虎湯類)
- ⑩ 口禁不開로 복약할 수 없을때는 通關散으로 候鼻하여 깨어난 뒤에 복약한다.
- ⑪ 湧吐劑를 使用할때는 닭 깃이나 손가락으로 探喉하여 嘔吐를 止한다.
- ⑫ 外感風寒劑는 뜨거울때 복용하고 覆被微汗한다
- ⑬ 補脾胃, 升陽益氣劑는 뜨거울때는복용한다.
- ⑭ 清熱瀉火는 복용시 복약후에 藥力의 降泄을 止한다.
- ⑮ 桂枝湯을 복용시는 복약후에 熱粥을 먹는 것이 좋다
- ⑯ 十棗湯을 복용시는 복약후에 稀粥을 먹는 것이 좋다.
- ⑰ 大黃牧丹皮湯을 복용시는 濃煎하여 한번에 복용한다.
- ⑱ 病이 上焦에 있으면 藥을 急하게 下하여 溫하게 하여 천천히 마시고,
- ⑲ 病이 下焦에 있으면 藥을 濃하게 下하여 마신다
- ⑳ 發汗藥은 緊火로 下하여 熱服 하여야 하고,
- ㉑ 攻下藥도 緊火로 下하여 熱服하되 煎熟時에 大黃, 芒硝를 入하여 再煎 溫服하여야 하고
- ㉒ 陰寒, 急病도 緊火로 急煎하여 服用하고 ,
- ㉓ 陰寒 煩燥者, 暑月에 伏陰이 內在者는 水中에 沈하여 冷服한다.
- ㉔ 咽喉疾患은 藥液을 含漱하면서 서서히 넘겨야 한다
- ㉕ 病症을 執證하기 어려울 때는 藥을 먼저 소량 복용하여 부작용의 반응이 없음을 확인 한 뒤에 반응에 대한 知, 差, 利등을 한도로 복용 하면서 관찰하여 辨證이 정확하고 用藥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될 때 藥量을 높여서 병은 가되 正氣는 傷하지 않게하여 나올 때까지 복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服用 回數

一般的으로 1일 3回 服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다 東醫寶鑑이나 醫學入門등 자주 臨床에서 接하게 되는 醫藥書에는 服用 回數에 對해서는 明示 되어 있는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직 申氏本草學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

服藥回數는 1日1회가 普通이다. 그러나 重病인 경우는 晝夜로 數回 服用한다. 人蔘湯은 낮에 3服 밤에 2服 하고, 麥門冬湯은 낮에 3服 밤에 1服, 大補湯은 1日2服 한다. 또 發汗劑로 發汗이 되지 않을 때는 繼續하여 再服 3服하고 産後腹痛의 起枕散類나 九種心痛의 手拈散類나 打撲損傷의 當歸鬚散類는 경우에 따라서 數貼을 連服하기도 하는 것이다.

말하되 日 一服하거나, 再服하거나, 三服하거나 하는 것은 要領에 따라 할 것이니 그 사람의 強羸과 病의 輕重에 따라서 進退 增減할 것이요 반드시 方說에 依支할 것이 아니다 라고 하였다 筆者의 經驗에 依해도 이 말이 옳다고 본다 熟地黃이 多量인 湯劑는 1日 3服을 하면 지치는 傾向이 많아 筆者는 補劑는 大部分 1日 2服, 또는 1服 정도로 勸한다 醫書에 早朝服, 空心服, 臨臥服등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은 모두 1日 1服을 말 한 것이다.

#### (4) 煎湯法

煎湯法도 無條件 오래 다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 많은 患者들은 藥湯器에서 오래 다려 줄수록 藥效가 增加되는 것으로 알고 몇 時間이고 다려 달라고 졸라대는 경우가 많다 이때 患者側의 要求대로 너무 長時間 다려주면 狼狽를 보기 십상이다 患者의 要求에 따라 무조건 오래 다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방법대로 할 것이다

- ① 補湯은 慢火로 다려서 졸여야 하고 (補藥은 물을 많이 붓고 다려서 적게 하여 마신다)
- ② 發汗, 瀉下 및 治 寒濕劑는 緊火로 다려야 한다.
- ③ 藥劑量이 많고 물이 적으면 藥味가 우러나지 않게 되고
- ④ 藥劑量이 적고 물이 많으면 너무 다리게 되어 藥力이 사라지게 된다
- ⑤ 찌꺼기를 버리고 清汁만을 取하여 服用하여야만 經絡으로 循行하여 病을 治療하게 된다.
- ⑥ 藥汁이 濃濁하면 藥力이 들지 못하여 도리어 滯하여 害가 되기도 한다
- ⑦ 모든 補湯에 들어 가는 약은 익혀 써야 하고,

모든 利藥은 生것이나 덜 익은 것이 좋다

- ⑧ 補藥은 물 두 盞을 부어 八分이 되도록 다리거나, 세 盞을 부어서 한 盞이 되도록 달인다
- ⑨ 利藥은 한 盞 半을 부어 한 盞이 되도록 다리거나, 한 盞을 부어 八分이 되도록 달인다

發汗藥은 八分쯤 달이고,

治病藥은 七分쯤 달이고,

滋補藥은 六分쯤 달인다

이 點에 對해서 徐靈胎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煎藥하는 방식에 따라서 藥의 效 不效

## □ 학 술

가 여기 있다. 肉魚나 羊豕를 料理 할 때 그 調度를 잃으면 사람에게 利益은 그만두고 害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물며 藥은 病을 治療하는 것인데 어찌 煎法을 講究하지 아니하라. 先煎藥을 分揀하여 어긋남이 없이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 .

藥 다리는 時間에 대해서도 注意를 換起시키고 있다. 不注意하여 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 水分이 蒸乾하여 藥液이 없어지는 狀態까지 되면 藥力은 아주 없어지게 되어 물을 다시 부어 또 다린다 하더라도 效果는 全無할 것이다. 反對로 물을 많이 부어 짧은 時間에 다리다 보면 藥液이 너무 많게 되어 藥力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 또한 效果를 期待하기 어려울 것이다. 補藥은 느린 불로 오래 다려야 하고, 利藥은 너무 오래 다리면 藥力이 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달이는 時間의 基準은 어디에 둘 것인가 물이 끓기 始作하는 沸度로부터 大略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 先煎 藥品時間인 경우 沸水爲度로 1時間 40分 정도 다린다
- ㉡ 平煎 藥品時間인 경우 沸水爲度로 50分 정도 다린다.
- ㉢ 後煎 藥品時間인 경우 沸水爲度로 10分 정도 다리는 것이 妥當하다

또 하나 再湯이라고 하는 再煎은 果然 必要한 것인가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 補藥이라면 兩劑(貼)의 殘滓를 乾燥한 뒤에 再煮하면 能히 一劑의 效를 期待할 것이나, 利藥은 再煎하는 것이 크게 이롭지 못하다고 하였다. 李仕材같은 사람은 맛이 厚하고 重한 것이라면 오히려 效力이 있겠지만 輕하고 薄한 것이라면 이미 餘味가 없다 무슨 效力이 있겠는가 라고 하여 補藥 以外의 藥劑 再湯은 별 藥力이 없는 것으로 評價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 初湯 3탕까지 다려야 좋다고 하는 학설도 있다(원광대). 여기에 의하면 1회 다리면 有效成分의 抽出率이 45%요, 3회를 다려야만 90%의 有效成分을 추출할수 있다고 하였는데 때문에 3회 煎湯하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가장 좋은 방법으로 3회 다린 약액을 혼합하여 3회 분복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였다 实效性이 의심이지만 참고는 할 것이다

### (5) 忌口 (服藥時 禁忌)

患者들의 不滿이 服藥時에 韓藥은 왜 그리 禁하는 것이 많으냐는 것이다 實狀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醫書를 살펴 보면 禁忌食品이 특정 질환을 제외하고는 꼭이라고 할만큼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服藥中 病症 不問하고 無條件, 돼지고기, 닭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根據가 없는것이 아닌가 싶다. 어떤 병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잘먹어서 營養을 補充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한다.

다음은 醫書에 나와 있는 忌口食을 拔取하여 들어보기로 한다

- ① 蒼, 白朮이 들어 있으면 복숭아 자두 참새고기 마늘 청어 젓갈 등을 먹지 않는다.
- ② 巴豆가 들어 있으면 멧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 ③ 黃連, 桔梗이 들어 있으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 ④ 地黃이 들어 있으면 燕羹를 먹지 않는다.
- ⑤ 半夏, 菖蒲가 들어 있으면 飴糖이나 羊肉을 먹지 않는다.
- ⑥ 細辛이 들어 있으면 生菜를 먹지 않는다
- ⑦ 甘草가 들어 있으면 松菜나 海藻를 먹지 않는다
- ⑧ 牡丹이 들어 있으면 生胡유 를 먹지 않는다
- ⑨ 商陸이 들어 있으면 개고기를 먹지 않는다.
- ⑩ 常山이 들어 있으면 날파, 生菜를 먹지 않는다
- ⑪ 空青, 朱砂가 들어 있으면 生血物을 먹지 않는다
- ⑫ 茯苓 이 들어 있으면 醋物을 먹지 않는다.
- ⑬ 鱉甲이 들어 있으면 鱉菜를 먹지 않는다.
- ⑭ 天門冬이 들어 있으면 鯉魚를 먹지 말아야 한다.

一切服藥時 禁忌食 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① 生胡유, 마늘, 잡된 것, 生菜를 多食하는 것은 不可하다.
- ② 一切 滑物, 果實등도 不可하다.
- ③ 돼지고기 개고기 油니, 肥羹, 魚膾, 腥조등을 多食 하는 것도 不可하다.
- ④ 服藥中 一切 禁忌로는 死體를 보거나, 妊産婦의 出産을 目擊하는 것을 禁 하고 있다
- ⑤ 服藥中 禁酒는 必守事項이다
- ⑥ 補藥 服藥中 녹두나물이나 무우는 解毒作用이 있으니 注意하는 것이 좋다
- ⑦ 病名別 禁忌食은 除外 (예 浮腫에 禁鹽) 等

## 2. 炮炙論

### (1) 總說

韓藥의 炮炙論이란 바로 修治法을 말한다. 藥의 修治란 마치 우리들의 食生活에서 營養分을 攝取하기 爲하여 食料品을 그대로 取食하는 것도 있지만 炙하고 (肉類), 炒하고 蒸하는 것 (餅類)과 같이 여러 方法의 料理法을 創案하는 것과 같은 理致로 發展해온 것이다.

## □ 학 술

藥物에 따라서 火製의 4法 (하, 외, 炙, 炒)과 水製의 3法 (漬, 泡, 洗)과 水火供製의 2法 (蒸, 炙) 등이 이런 것이다 徐靈胎는 말하기를 製藥法을 古方에서는 甚하게 쓰지 않았으나 宋代의 雷敔에 依하여 詳論되었으니 雷公炮炙論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後世에 이르러서는 製藥法이 날로 많아 졌고 그 中에는 無理한 說도 없지 않다고 하였다. 醫學入門(또는 東醫寶鑑)에서는 詩를 引用하여 다음과 같이 그 必要性을 強調하고 있다.

一.

① 利하는 藥이 生한 것이 좋은 것은 肌膚를 맑게 해 주는데 必要하기 때문이요, 補湯이 熱한 것이 좋은 것은 血을 調養하는 데 마땅하기 때문이다.

② 山梔子是 시(매주종류)가 없으면 吐하지도, 宣揚하지도 않는다

③ 麻黃은 蔥이 없으면 發汗 시키지 못하며

④ 大黃은 枳實이 아니면 通하지 않고

⑤ 竹瀝이 薑汁이 아니면 行經하지 못하고

⑥ 蜜이 三角이 아니면 結한 곳을 解하지 못한다.

⑦ 白花는 本디 利尿作用이 있으나 醋로 修治하지 않으면 잘 通利 시키지 못한다.

⑧ 綠豆는 本디 解毒作用이 있으나 帶殼한 것을 그대로 쓰면 效를 나타내지 못한다.

⑨ 草果는 膨脹症을 消退 시키는 效가 있으나 去殼하지 않으면 胸口(명치)를 脹滿하게 한다.

二

① 黑丑(牽牛)은 生用하면 利尿하고

② 遠志는 苗까지 함께 쓰면 毒을 만난다.

③ 蒲黃은 生用하면 通血, 破血作用이 있고, 熟用하면 補하며 血液을 運通 시킨다

④ 地榆는 出血을 醫治하지만 梢部를 除去하지 않으면 止血의 效가 없다

⑤ 陳皮는 오로지 理氣를 하지만 留白한 그대로 쓰면 胃腸을 補해 준다

⑥ 附子는 生薑이 없으면 熱하지 않다, 陰證을 救治 하지만 生用하면 皮風을 走散시키며,

⑦ 草烏는 風痺를 解散시키거나 生用하면 사람을 昏蒙하게 한다.

⑧ 人言은 燒하 해서 써야 한다. (모든 石類의 藥은 火하를 紅色이 나타나는 정도로 하되 춧물에 넣으면 (醋취)粉末로도 만들 수 있으니 修製의 法度를 工들여 지켜야 한다

⑨ 川芎은 炒하고 去油하여 써야 하나 生用하면 氣痺痛이 發生한다

⑩ 烏豆湯에 漬함이나, 甘草湯에 淸함은 毒性을 解하게 爲 함이요.

⑪ 羊수 猪脂를 발라서 燒하는 것은 鬚髭로 스며들어 脆斷하기 容易하게 하려 함이요.



⑫ 禁鐵藥(知母, 桑白皮, 天, 麥門冬, 何首烏, 地黃等) 을 犯鐵하면 三消病이 된다.

三

① 去心藥(遠志, 巴戟天, 天, 麥門冬, 蓮子, 烏藥等) 을 去心하지 않으면 煩燥症이 發生한다.

② 去皮藥(猪苓, 茯苓, 厚朴, 桑白皮等) 을 去皮하지 않고 쓰면 元氣를 消耗 시키고, 또 栝字仁, 火麻子, 益智仁, 草果等を 去皮하지 않으면 心下비症을 發生할 것이다.

③ 酒洗, 去土藥(當歸, 生地黃, 肉從容等)을 그대로 쓰면 滿悶感이 發生할 것이다.

④ 去皮, 尖藥(桃仁, 杏仁, 及雙仁) 을 그대로 쓰면 疔, 癰病이 發生할 것이다.

⑤ 湯泡(蒼朮, 半夏, 陳皮等)하여 그 燥澁性을 버려야 하고

⑥ 去蘆頭(人蔘, 桔梗, 常山等) 하여야 嘔吐가 發生하지 않을 것이요

⑦ 泡를(麻黃) 하여 頭汗을 버려야 煩心證이 發生하지 않을 것이다.

⑧ 높은 곳의 病(重病)은 酒를 加하여 다리고,

⑨ 濕證을 다스리려면 生薑을 加하여 다리고,

⑩ 元氣를 도우려면 大棗를 加하여 다리고,

⑪ 風寒을 發散하려면 蔥을 加하여 다리고,

⑫ 胸膈위의 病은 蜜을 加하여 다린다.

四.

① 蜜劑는 甘緩益元하여 入肺하고,

② 薑製는 溫散하여 入脾하고,

③ 鹽製는 軟堅하여, 入腎하고,

④ 醋製는 收斂하여 入肝하고,

⑤ 童便製는 劣性을 降下하여 入心한다

⑥ 米甘製는 燥性을 去하여 和中하기 爲함이요

⑦ 乳製함은 枯를 潤하게 하고 血을 生하게 하려 함이요,

⑧ 陳壁土製는 土氣를 利用하여 脾胃를 生하게 하려 함이요.

⑨ 麵의곡製 함은 酷性을 抑制하기 爲함이요

⑩ 火포, 湯포, 의, 炒를 함은 그 毒性을 修製하여 抑制, 弱化 시키려 함이요.

⑪ 醋製, 薑製, 수炙 함은 行經, 活血하러는데 目的이 있다.

⑫ 以外에 水飛, 火하, 醋쉬, 酒浸, 硃研 法等이 있으나 위의 해설들과 비슷하여 이를 援用 類推하면 될 것이다.

## □ 학 술

### (2) 方藥

方이라고 하는 것은 方劑를 말하는 것이다. 方은 卽 治劑를 말하는 것이요. 治療 原則에 依據하여 各種의 藥物을 適量式 組合하여 混合하고 이것을 一定한 劑型으로 만들어서 醫療나 豫防에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藥物은 이 調合에 依하여 보다 좋은 作用을 하게도 되고 나쁜 作用을 하게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適定한 方法을 찾기 爲해서 君臣佐使法이라거나 大方 小方 緩方 急方 奇方 偶方 複方등 七方이 있으니 이것을 簡單히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大方 . 邪氣가 强하고 旺盛하고, 兼證이 있는 病證에는 大方을 使用한다. 一例로 大承氣湯을 들 수 있다.
- ② 小方 : 邪氣가 輕하고 弱하며 兼證이 없는 病症에는 小方을 使用한다. 一例를 든다면 蔥薤湯(五種)等이다
- ③ 緩方 : 慢性的인 虛弱의 病症에 適用한다 一例로 四君子湯을 들 수 있다.
- ④ 急方 : 急病 重病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一例로 回陽 救逆하는 四逆湯을 들 수 있다.
- ⑤ 奇方 . 病因이 單純하기 때문에 藥物 種類가 奇數인 것이다. 一例로 甘草湯(一味) 桂枝湯(五種) 等이다.
- ⑥ 偶方 藥物 種類가 偶數인 것을 말한다. 病因이 比較的 複雜하고 二種以上의 主藥으로 治療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一例로 八味地黃湯(八味) 等이다.
- ⑦ 複方 : 二個 以上 數方을 結合하여 使用하는 것을 말한다. 病狀이 複雜하거나 慢性病으로 오랫동안 낫지 않는 疾病에 쓰는 藥이다. 例하면 小柴胡湯과 四物湯을 合하여 柴胡四物湯이 된 것 等이다. 또 하나는 藥方以外에 다른 藥味를 加味한 것이나, 方劑의 各各 藥物 用量이 같은 것도 複方이라 한다
- ⑧ 君臣佐使 : 方劑의 경우는 일정한 법칙에 依據, 分量을 調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君藥은 약의 방제중에서 主證을 치료하여 主된 作用을 하는 藥물이며 필요에 따라서는 一種혹은 數種을 主藥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臣藥은 主藥을 도와서 治療의 效果를 높이는 藥물이다. 佐藥은 主藥을 도와서 兼證을 치료하거나 主藥의 毒성과 强한 性味를 抑制하며 또는 反對의 作用을 갖고 있는 藥물을 억제하는 藥물이다. 使藥은 各種의 藥물을 所在個所까지 길을 인도하거나 직접 보내주며 各種 약의 作用을 調和하는 藥물을 말 하는 것이다.

### (3) 劑 型

① 劑 (劑型) - 劑란 藥物로서 製造된 形態를 가리킨다 現在는 劑型이라고 한다. 이 劑에는 湯, 酒, 丸, 散, 膏, 丹, 錠, 片, 露, 霜, 茶, 曲 등 많은 型이 있다. 또 하나는 古代에는 一服의

藥을 一劑藥이라고 하였는데 지금은 一帖藥, 또는 一付藥이라고 한다. 古書에 三劑를 服用하라고 하였다면 現在의 三劑인 60貼으로 解釋하지 말고 三貼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② 湯液(湯劑) 藥物을 다려 낸 汁의 意味이다. 藥物을 물에 넣어서 다려 湯液으로 하고 찌꺼기를 걸러 내고 液汁을 取하여 服用한다. 湯液은 吸收가 比較的 빠르므로 그 作用이 發揮되기 쉬워 新病이나 急病에 많이 使用된다고 하나, 또 말하기를 湯이라는 것은 蕩字와 意味가 같은 것이니 久病에 써서 蕩滌하는 것이라고 하여 學說이 一元化되어 있지 않기도 하다. 또 하나는 純粹한 淸酒, 즉 黃酒를 가리켜 湯液이라고 하였다.

③ 煎. 藥物을 물에 넣고 끓여 내는 것을 말하는데 湯劑의 別稱이기도 하다.

④ 陰, 陰子. 湯劑에는 冷服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陰이라 한다. 香附陰이 이것이다. 또 時間을 定하여서 冷服하는 것을 陰子라고 하니 地黃陰子が 그것이다. 맛이 濃하고, 기름기가 많은 藥物은 1-2回 沸騰시키고 冷服하는 것이 좋다 하여 濁藥輕投, 卽 濁藥은 가볍게 먹는다고 한 것이다.

⑤ 酒劑. 藥酒 라고도 한다. : 藥物을 一定한 時間 술에 담그던가, 끓여서 찌꺼기를 걸러 내어, 透明한 液體를 取한 것인데 經絡을 잘 通하게 하여 麻痺를 除去하고 痛症을 멎게 한다.

⑥ 丸 丸劑 : 部の 病을 治療하는 것은 丸이 極히 크고, 中焦의 것은 그 다음이요, 上焦의 것은 極히 작게 만드는 것이다 稠麵糊 和丸은 더디게 消化되어서 下部까지 내려가라는 것이요, 酒丸이나 醋丸은 그의 收斂과 發散의 作用을 뜻하는 것이며, 稀麵糊나 水浸丸, 滴水丸 등도 모두 消化를 쉽게 하려 함이다. 蠟蜜 和丸은 더디게 消化하여 氣가 經絡에 循行하도록 하기 爲해서요, 蠟으로 和丸하는 것은 消化가 어려워져 漸進的으로 效를 取하려 함이다.

製丸法은 藥物을 粉末하여 蜂蜜이나 水, 糊 或은 藥汁等과 混合하여 各樣의 球型 丸藥을 만든다. 이것은 服用에 便利하며 吸收가 緩慢하고 藥力이 比較的 持續한다. 藥物中 高熱에 弱하고 물에 녹기 힘들고, 揮發하기 쉽고 毒性이 강한 것은 大體 丸藥으로 하는 것이 좋다 한다. 丸劑는 普通 慢性病에 使用되고 특히 疰積을 除去하는데 適合하다. 그러나 急病에도 使用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때는 물에 녹여서 服用하는 것이 좋다.

⑦ 散, 散劑 : 散이란 卽 흩어버린다는 것이니 急病에 쓰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散이란 細末을 意味하는 것인데 全經絡을 循行하지 않고 다만 胸膈위의 病과 臟腑의 積氣에만 適用이 되는데 厚味한 것은 白湯에 調下하고 薄味한 것은 다려서 찌꺼기채 먹는 것이다. 그러나 이 散劑란 內服과 外用의 二種類로 나누어 說明하고 있다.

一. 內服用, 散劑는 藥物을 粉碎하여 粗粉末과 微粉末로 한다. 粗粉末은 물로 끓여서 服用하

## □ 학 술

고, 微粉末은 白湯, 茶, 重湯, 또는 술에 섞어서 服用한다.

二. 外用の 散劑는 藥物을 微粉末로 하고 局部에 散布 하거나, 酒, 醋, 蜂蜜等으로 반죽하여 患部에 바른다.

⑧ 煮散 : 藥物을 粉碎하여 粗粉末로 한 散劑에 물을 넣어서 끓여 내고 찌꺼기를 걸러 내서 그 湯液을 服用하는 것을 煮散이라고 한다.

⑨ 膏, 膏劑 : 內服用과 外用の 두 가지로 나눈다.

一. 內服用. 藥物에 물을 가하여 再三 다린 後, 찌꺼기를 걸러 내고 그 液汁에 氷砂糖, 蜂蜜 등을 가하여서 煮하여 練藥을 만든 것이다 이것은 長期 保存할 수 있다. 膏劑에는 補養 治療의 作用이 있고 慢性의 疾病이나 虛弱體質者가 常用한다.

二 外用. 藥膏라고도 하고 油膏라고도 한다. 蜜蠟을 綿實油나 落花生油에 넣어서 加熱하고 溶解하여 더울 때 藥物의 粉末을 넣어서 한참 동안 攪拌한 後 식혀서 凝固한 것이다

⑩ 丹 : 內服用과 外用の 두 가지가 있다. 外用으로는 水銀 硫黃 등이 含有된 鑛物質을 熱을 가하여 製造한 것이고 粉末狀이다. (紅昇丹, 白降丹 등이다. 內服用으로는 紫雪丹과 같은 散劑도 있고 至寶丹과 같은 丸劑도 있고, 關廛丹과 같은 錠劑도 있다. 後人들이 丸劑, 散劑中 藥性이 強하기 때문에 使用量이 적은 것을 丹이라고 한다고 하였으나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한다 入門에는 丸의 큰 것을 丹이라고 한다고 하고 있다.

⑪ 錠 : 藥物을 粉碎하고 아주 微細한 粉末로 만든 後, 普通 풀과 混合하여 紡錘, 圓錐, 長方形 등의 各樣各色, 模樣의 固體 藥劑를 만든다. 內服時에는 錠을 搗碎하고 따뜻한 白湯으로 服用한다. 外用時는 酢나 참기름으로 반죽하여 患部에 塗布한다

⑫ 露 : 藥物에 물을 넣어서 蒸油하고 收蒐한 透明의 液體를 말한다. 이 露劑는 長期 保存 할 수 없으므로 그때마다 만들어서 服用하여야 한다.

⑬ 曲 : 藥物의 粉末과 小麥粉을 混合하여 잘 반죽하고 덩어리로 만들어 醱酵시킨 것을 曲劑라고 한다. 半夏曲, 沈香曲 등이 이것이다

⑭ 高, 珠 : 고는 “떡고”字이다. 九仙王道고가 있고, 毓麟珠가 있다 모두 방약합편에 있다. 고는 떡같이 만들어 隨時로 씹어먹는 것이고, 珠는 丸과 같으나 씹어 먹는다고 되어 있다

### (4) 煎 藥法

① 煎藥法 : 藥物을 물에 넣어서 一定時間 煎하고 찌꺼기를 걸러 내어 液汁을 服用하는 데도 一定한 方法이 있다 發表, 理氣藥은 그 氣를 使用하므로 相當히 強한 불로서 比較的 짧은 時間

에 서둘러 다려야 하지만, 補益藥은 보통 그 藥味를 使用하므로 比較的 弱한 불로 천천히 긴 時間 동안 다려야 하는 것이다. 水量的 過多는 藥物의 性質과 藥味の 多少, 病者의 年齡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 以外에 아래와 같이 先煎, 後下, 包煎등의 方法이 있다.

② 先煎 : 藥物이 貝類인 境遇에는 藥氣나 藥味를 다려 내기 힘이 듦으로 뺏아서 미리 다려 두어야 한다. 石膏, 代자石, 牡蠣, 鱉甲 등이 그것이다. 麻黃은 于先 2~3回 沸騰 시키고 水面에 뜬 泡沫을 떠낸 後, 물을 加하고 다시 나머지 藥물을 投入하고 다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服用後 氣分이 不安해 진다고 하는 것이다 (정沖, 不眠症이 오기도 한다)

③ 後下 : 藥效를 더 有效하게 하기 爲하여 或種의 藥은 後下하여야 한다. 즉 다려지는 동안 조금 늦게 投入하여 다리는 것이다. 例하면,

- 釣鉤藤은 오래 다리면 藥力이 喪失 되므로 다 다려지기 직전에 投入하여 2~3回 沸騰 시킨 後, 即時 불에서 떠나도록 하여야 한다
- 發表藥의 薄荷도 오래 다리면 藥氣가 喪失되므로 後下하여야 한다
- 瀉下藥의 大黃은 미리 少量의 물에 담구어 두고 藥湯이 다 다려지기 直前に 投入하여 數回 沸騰 시키고 쓰는 것이 좋은 것이다.

④ 양化·芒硝, 飴糖, 蜂蜜, 阿膠 (미리 물을 부어서 오래 다려서 녹인다) 등은 모두 藥湯이 다 다려져서 찌꺼기를 걸러 낸 後에 加하고 다시 藥湯器를 불에 올려 놓고 조금 다려 芒硝등을 完全히 녹도록 한다. 抱龍丸이나 寶丹등은 적은 물잔 속에 넣어 藥湯이 스며들면 대 주걱으로 가볍게 눌러서 녹인 後에 服用한다.

⑤ 包煎 : 털이 있는 植物의 藥品은 綿布에 싸서 다려야 한다. 例하면 旋覆花에는 털이 있으므로 包煎 하여야 하는 것이다. 散藥, 丸藥은 飲片과 함께 煎하지만, 藥湯이 기름기가 많고 濁하여서 마시기 힘든 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包煎하여도 좋고, 또 桃仁은 뺏아서 泥狀으로 하여 흩어지지 않도록 包煎하는 것이 좋다.

⑥ 酒煎 : 아주 重한 病(至高之病) 에는 酒를 加하여 煎한다.

## (5) 바른 服用法

藥方이 비록 病에 適合하였다 하더라도 服用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功이 있기는 커녕 오히려 害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熱服하고 따뜻한 자리에 누워서 이불을 덮고 몸을 덮게 해 주어야 藥氣가 榮衛로 돌아서 熱氣가 온 몸을 휩싸므로 風寒으로 하여금 땀을 따라 풀리게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게 服用하지 아니하고 바람 부는 곳에서 앉거나 서 있는 상태에서 먹는

## □ 학 술

다면 藥氣가 腸胃에 머물러 오히려 이 藥으로 營氣가 傷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通利之藥은 積滯된 것을 化하여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空腹에 頓服 하여 藥性이 鼓動을 일으켜 垢濁한 것을 大便으로 내리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飲食과 雜投하게 되면 新舊物이 混雜하여 藥氣와 飲食物이 相亂하게 되므로 氣性이 不專하여 食積이 더욱 滯하게 된다고 注意를 환起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바른 服用法에 對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① 冲服·沈香, 木香 등의 芳香藥의 陰片을 于先 空器에 넣는다. 그 以外의 藥은 물에 넣어서 煎하고 그 湯液을 攪어짜서 空器에 붓고, 잠시 담구어 둔 다음 따듯할 때 湯液만 服用 하는 것이다.

② 調服·서角, 羚羊角, 鹿角, 牛黃, 朱砂 등은 別途로 粉末로 하면 좋다. 藥湯을 다린 後 湯液을 小量 取하여, 여기에 서角 등의 粉末을 넣어서 잘 攪拌한 後 服用하며 이어 나머지 藥液을 服用하는 것이다. 紫脣丹을 服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送服(送下) 丸藥을 服用하는데 더운물이나 물로 吞下하는 것이다. 別途 指示가 없는 丸藥은 溫水로 服用한다 醫書에는 下라고 있는 것은 모두 送服하라는 것이다.

- 溫하게 하기 爲한 丸藥이나 寒邪를 監視하기 爲한 丸藥은 生薑湯으로 服用한다
- 熱을 清하게 하기 爲한 丸藥은 薄荷湯으로 服用하는 경우가 많다.
- 눈을 잘 보이게 하기 爲하여서는 綠茶로 服用한다.
- 滋補藥, 或은 調劑한 峻藥, 및 補腎의 丸藥은 모두 稀釋한 鹽湯으로 服用한다.
- 祛瘀活血을 爲한 藥物은 酒로 服用하여 藥力을 돕는다.

④ 금化·丸 또는 錠劑를 口に 머금어서 녹이는 것이다. 이것을 吐出하는 경우도 있고 吞下하는 경우도 있다.(금자는 머금는다는 뜻이다)

- 例하면 急性扁桃腺炎에는 山豆根과 玄蔘을 製丸 하여 口속에서 녹인뒤 吐出하는 것이다.
- 陰虛證을 고치는데는 陰氣를 滋養하고 上逆한 肺氣를 清하고 降下시키며 止咳하는 丸藥을 口속에서 녹인 뒤 吞下하는 것이다.

⑤ 食遠服·食事後 상당히 지난 後 卽 食間에 服藥하는 것이다 脾胃의 疾病을 治療할 때나 瀉下藥을 服用할 경우에 食間에 服用한다.

⑥ 空腹服(空心服) {平旦服} : 早朝 아직 朝食을 먹기 전에 服用하는 것을 말한다. 四肢의 血脈病이나 驅蟲藥은 모두 朝食前에 服用한다.

⑦ 飯前服 : 病이 下焦에 있는 때는 食前에 服用하는 것이 좋다. 普通 補養藥이나 補腎藥은 食前에 服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病在心腹以下者 先服藥而後食이라고 했다.

⑧ 飯前服：病이 下焦에 있는 때는 食前에 服用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普通 補養藥이나 補腎藥은 食前에 服用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病在心腹以下者 先服藥而後食 이라고 했다.

⑨ 飯後服：病이 上下焦에 있는 경우에는 食後에 藥을 服用한다. 普通 神養藥, 驅蟲藥 以外の 거의 모든 藥은 食後에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病在胸膈以上者 先食 後服藥이라고 했다.

⑩ 臨睡前服(臨臥服)：病邪가 胸膈部에 停滯하고 있는 경우, 病邪가 左右의 肋骨, 肺 및 橫膈膜 위에 있는 경우에는 就寢前에 服用하면 좋다는 것이다.

⑪ 未發病前服：虐疾은 症狀이 생기기 前, 適當한 時期에 藥을 服用하는 것이다.

⑫ 頓服：病邪가 下部에 있는 경우에는, 多量의 藥을 한번에 服用하여야 한다. 但 病邪가 下部에 없으나, 危險한 경우에도 이 服用法이 效果가 있는 것이다.

⑬ 頻服：病邪가 上部에 있는 경우에는 藥湯은 小量으로 여러 回로 나누어서 服用한다. 목病에는 頻번하게 頻服하게 목에 머금은 뒤 넘겨야 하는 것이다

⑭ 溫服：藥湯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을 때에 服用한다. 普通 補托藥이나 溫養藥등은 溫服하면 좋다고 하였다. 그러나 現在 모든 藥은 大概 溫服法을 使用하고 있는 實情이다.

⑮ 熱服：熱劑를 뜨거울 때 服用하는 것은 大寒證에 適用한다. 寒劑를 뜨거울 때 服用하는 것은 假寒眞熱證에 適用한다.

⑯ 冷服 寒劑를 차게 하여 服用하는 것은 大熱證에 適用한다. 熱劑를 차게 하여 服用하는 것은 假熱眞寒證에 適用한다.

## (6) 炮炙(修治)法

무릇 藥이라는 것은 病을 治하는 것인데 變化를 이루는 것은 病에 있고 主治하는 것은 藥에 있고 製用하는 것은 사람에 있으니 이 三者中 하나만 闕해도 안된다 했다. 修治法이 그만큼 重要하다는 말일 것이다. 그 總說을 들어본다.

① 酒는 藥勢를 行하게 하는 故로 製藥中 많이 쓰고 있다. 酒製함은 升提를 爲함이다.

② 病이 頭面과 手指와 皮膚에 있을때 酒炒하는 것은 藥勢를 上騰시키는 것이요

③ 病이 咽喉아래 臍上위에 있을때 酒浸, 酒洗를 하여 用하고, 下部에 있으면 生으로 하여 用하고, 升降을 兼行하기 爲해서는 半生半熟으로 하여 쓰는 것이다.

④ 大黃을 외하는 것은 차가워서 胃氣를 損傷 시킬까 두려워 함이요.

⑤ 川烏, 附子를 포 하는 것은 毒을 制御하려 함이요.

## □ 학 술

⑥ 黃栢, 知母는 오래 虛弱한 사람의 藥인데 차가워 胃氣를 傷하는 것을 防止하기 爲하여 酒浸, 暴乾하는 것이요, 熟地黃도 또한 같은 理致인 것이다.

⑦ 妊娠 傷寒에 半夏를 遍數 不拘, 泡하여 쓰면 胎氣를 損傷하지 않는다.

炮製란 · 藥品을 名種의 劑型으로 만들 때까지 名樣의 加工 處理 過程을 거쳐 完成하는 것을 말한다.

포製의 目的은 下와 같다.

① 雜物이나 無用의 部分을 除去하고, 藥物을 깨끗하게 한다. 方法에는 洗, 漂, 포 의 法이 있다. 또 비릿한 맛과 臭氣를 除去하는 것이다.

② 製劑, 服用 및 保存에 便利하게 한다 例하면 薄片으로 切斷하고 磨碎하기 爲하여 포 하 炒등의 方法을 使用한다. 粉碎하거나 煎하여 有效成分을 取하기 쉽게 하기 爲하여 代자石, 滋石등의 鑛物이나 鱉甲, 牡蠣등 介殼類등은 火中에 넣어서 燒成하거나 醋로 處理하면 品質이 弱해져 粉碎하거나 煎하는 時間을 短縮하는데 便利하며 有效成分을 다려 내는데 適合하다. 藥物을 乾燥시키고 保存에 便利하게 하기 爲하여서는 烘, 려(별에 말린다), 陰乾등의 方法을 使用한다.

③ 藥物의 毒性, 刺戟性 및 副作用을 除去 或은 緩和하는 方法이다. 例하면 生半夏를 生薑汁으로 製하는 것은 藥性의 過激性을 抑制하고 목을 刺戟하거나 中毒시키거나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또 巴豆는 油質을 除去함으로써 毒性을 弱하게 하는 것이다.

④ 藥物의 性質을 바꾸고 治療效果를 높인다. 例하면 生地黃의 作用은 血分에 入하여 熱邪를 淸하는 것이나, 이것을 술로 油서 熟地黃으로 하면 性味는 溫해 지고 補血의 作用을 갖게 된다.

이 포製는 手製, 火製, 水火合製의 三種類로 分類되고 名其 다음과 같은 方法이 있다

- 水製는 洗 漂, 泡 漬水 등의 方法이 있고
- 火製에는 炒, 烘 焙 炙 등의 方法이 있으며
- 水火合製에는 蒸, 煮, 油, 등의 方法이 있다

⑤ 油炙 本來는 油와 炙의 二種의 製藥法을 稱하였던 것이나 그 뒤에 藥材의 加工處理의 總稱으로 使用 하였으니 雷敷의 油炙論이 代表的이다.

一. 洗 : 물로 藥物의 表面에 附着한 흙이나 그 外의 不純物을 씻어 내는 것을 말한다.

二. 漂 或種의 藥物은 流水에 끊임없이 漂하거나 물을 뿌려서 漂하여 그 毒性和 鹽分등의 雜物, 비릿내등을 除去하는데 例하면 海藻, 肉從蓉, 鹽附子, 半夏등은 이 方法으로 製하는 것이



다.

三. 泡 = (浸泡, 漬) 藥物을 물에 담구어서 불어나게 하는 것이다. 例하면 枳殼, 芍藥 등은 물에 담구어서 軟하게 하면 薄片으로 자르기 쉬어진다.

(伏) 當歸, 桔梗 등은 물에 담구어서 적신 後 容器에 넣어서 一定한 時間 放置하여 두면 軟하게 되어서 薄片으로 자르기 쉬어진다. 이것을 伏이라 한다.

(漚) 桃仁, 杏仁 등은 沸騰시킨 물에 담구어서 불어나게 하면 皮나 胚芽를 除去하기 쉽다. 이것을 (漚)이라 한다.

(漬) 약물에 물을 徐徐히 스며들게 하면 藥性을 喪失 시키지 않고 軟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을 漬(지)라고 한다 漬藥을 하려면 藥材를 잘게 썰어서 生絹자루에 담아 꼭 封한뒤 담근다 春 5日, 夏 3日, 秋 7日, 冬 10日間 담갔다 濃度와 強度를 보아 걸러 낸다.

四. 水飛 : 或種의 藥物은 水飛法을 使用한다 卽于先 藥物을 연하여 粉末로 한 後 乳鉢에 넣어서 물을 加하여 磨碎 하여 아주 微細하게 만들고 그 위에 大量의 물에 넣어서 攪拌한 後, 藥粉을 含有한 물을 들어내어 藥粉을 分離하고 이것을 乾燥시켜 微細한 粉末을 만든다 滑石, 礬石, 朱砂, 爐甘石 등은 普通 이 水飛法을 使用한다.

五. 煨 : 藥物을 불 속에 넣어서 볶어질 때 까지 태우거나 耐火 容器 속에 넣어서 間接적으로 불로 소成하여 그 質을 脆弱하게 하는 것인데 牡蠣, 血餘, 明礬 등은 이 方法을 使用한다.

六. 炮 : 藥物을 高溫으로 熱한 쇠솥 속에 넣어서 재빨리 볶으면 연기가 나고, 藥物의 表面을 黃色으로 태우고, 破裂 시킨다. 이것을 炮라고 한다 乾薑, 附子, 天雄 등은 炮法으로 그 劇性을 弱하게 한다

七. 煨(외薑) : 藥物을 적신 종이 或은 물로 泥狀으로 만든 小麥粉으로 싸고 熱灰속에 넣어서 썬서 종이나 小麥粉이 검게 타면 종이 或은 小麥粉을 벗기면 油質을 吸收할 수가 있다 例하면 肉豆蔻에 이 方法을 使用하면 嘔吐를 일으키지 않는다. 또 生薑을 熱灰속에 넣어서 썬서 만드는 것을 外薑이라 하며 生薑이 갖고 있는 發散性을 輕減하고 脾胃를 溫하게 한다.

八. 炙(合炒) : 藥材와 液狀의 補助材를 同時에 넣고, 熱을 加하여서, 補助材를 藥材속에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合炒라고도 한다. 使用하는 補助材에 依하여 12種의 炙法으로 分類한다.

① 酒炙 : 大部分 黃酒를 使用하나 白酒(高粱酒)를 使用할 때도 있다 두가지 方法이 있는데, 하나는 藥材와 술을 混合하여서 熱을 加하여, 稀黃色이 될 때까지 끓인다 또 하나는 우선 藥材를 稀黃色이 될 때까지 볶은 後 술을 뿜어 주어서 조금더 볶는다. 當歸나 川黃連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② 醋炙 : 米醋를 넣어서 볶는다. 香附子, 三陵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 □ 학 술

㉔ 鹽炙 : 소금을 물에 넣어서 溶解하고 이것에 藥材를 넣어서 볶는다. 橘核, 杜沖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㉕ 薑炙 : 生薑을 찢어서 汁을 取하고, 여기에 藥材를 넣어서 볶는다. 竹茹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㉖ 蜜炙 : 藥材를 蜜과 混合하여 熱을 加하여 볶는다. 枇杷葉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㉗ 米泔水炙 : 米泔水(뜨물)에 담근 後 볶는다. 蒼朮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㉘ 羊脂炙 : 羊脂와 藥材를 함께 볶는다. 陰羊藿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㉙ 童便炙 : 藥材를 小兒의 小便과 함께 볶는다. 香附子 등은 이 方法으로 볶는다.

㉚ 藥汁炙 : 藥材를 藥汁과 함께 조린다. 甘草의 汁으로 吳茱萸를 조리는데 一例이다. 補料은 製藥할 때의 補助物質을 말하나 液狀의 補助材에는 酒, 醋 등이 있고 非液狀 補助材에는 澱粉, 砂糖, 鹽 등이 있다. 이 中에서는 소금물에 녹이면 液狀의 補助材가 된다.

㉛ 이 外의 鱉血炙, 礬炙, 등은 省略.

九. 燒存性(炒存性) : 植物性의 藥物을 炭劑하는 데는, 外側은 검게 타고 內側은 狐色으로 탈 程度로 태운다. 卽 藥物은 一部分은 炭化하여도, 다른 一部分은 本來의 氣味가 남도록 하는데 이것을 存性 이라고 한다. “燒存性”은 直火로 태우고, “炒存性”은 間接的으로 불로 處理하나 그 目的 하는 바는 같다. 止血藥으로서의 炭劑는 普通 이 方法으로 포하여 調製한다

十. 蒸(酒蒸) : 製劑에 便利하도록, 藥物을 蒸籠에 넣어서 잘 찢는다. 例하면 茯苓이나 厚朴은 찢으면 薄片으로 자르기 쉽다. 또 술을 넣어서 攪拌하여 찢는 것도 있다. 大黃이나 地黃은 이 方法으로 찢면 熟大黃은 瀉下作用이 弱해지고 熟地黃은 生地黃의 涼血의 藥性이 變하여 溫性이 되어, 血液을 補助하게 되는 것이다.

十一. 煮 : 或種의 藥物을 清水, 或은 液狀의 補助劑(酢, 藥汁 등)에 넣어서 조금 끓여서, 그 毒性을 弱하게 하고 藥物의 純度를 높인다. 例하면 白花는 醋로 끓여서 그 毒性을 弱化시켜 주면 좋고, 朴硝(芒硝의 純度가 낮은 것) 에는 흙이나 雜物이 夾雜해 있으므로 무우와 같이 끓여서 식히면, 玄明粉이 되는데 이 純度는 朴硝 보다는 높은 것이다.

十二. 淬(단취) : 藥物을 불로 볶게 熱한 後, 곧 물, 或은 醋속에 넣는다. 이것을 여러번 反復한다. 단취라고도 한다. 例하면 磁石(磁鐵鑛), 代자石(赤鐵鑛), 自然銅 등에는 普通 이 方法을 使用한다.

十三. 熬(者爛. 煎乾) = 煮爛法과 煎乾法의 두 가지 意味가 있다. 煮爛은 軟하게 될 때까지 香내가 날 때까지 끓이는 意味이나 거의 使用하지 않고 있으며, 煎乾은 煎膏藥은 熬膏藥이라고도 하여, 藥物을 참기름에 넣어서 조리면 진하게 凝固하여서 膏로 하는 것이다.

十四. 去油 . 去油의 目的은 藥物의 劇性과 毒性을 緩和 시키는데 있다. 어떤 藥物은 火 燭에 서 炸내어 기름을 除去하는데 肉豆蔻는 이 方法을 取하고 있다 火를 싫어 하는 巴豆나 續隨子는 壓搾하여 기름을 除去한다. 或은 藥物을 粉末로 한뒤 水를 加하여 기름이 浮上 하는 것을 기 다려, 水와 기름을 除去하기도 한다 乳香과 沒藥은 普通 볶아서 기름을 除去한다.

#### 十五. 製霜

㉠ 植物의 種子를 藥材로 하는 경우, 그 種子의 기름을 炸낸 後의 粉末을 말한다. 巴豆霜, 蘇子霜, 杏仁霜등이 그것이다

㉡ 어떤 種類의 藥材에서 抽出한 結晶을 말한다. 例하면 麝香이 그것이다.

㉢ 어떤 種類의 動物性 藥材의 膠分을 除去한 骨을 粉末로 한 것으로서 鹿角霜이 그것이다.

十六. 擘 : 或種의 藥物을 煎하기 前에 于先 손끝으로 찢어 내어 藥味를 끓여서 나오기 쉽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 例하면 桂枝湯의 大棗는 擘질을 벗겨 쓰는 것이다

十七. 부咀 . 옛날에 藥物을 입으로 씹어서 작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으나 지금의 錘어 쓰는 것으로 足하다.

十八. 炒 藥材를 火 燭에 넣어서 熱을 加하고, 攪拌하는 事인데 該 程度에 따라서 5種類로 分類한다.

㉠ 微炒 藥物의 表面에서 水分이 없어지고, 조금 마른 程度까지 볶는것, 一見 거의 變化를 볼 수 없다.

㉡ 초暴 . 藥物이 破裂할 程度까지 볶는 事 王不留行등의 種子의 藥物은 種皮가 터질 때까지 볶는다.

㉢ 炒黃 : 藥物이 희미하게 黃色으로 되고, 特殊한 香내를 發할 程度까지 볶는 事인데 炒麥芽, 炒穀芽등은 該 方法으로 處理한다.

㉣ 炒焦 - 藥物表面이 褐色으로 타고, 內部가 深黃色으로 될 때까지 볶는 事인데, 神曲, 白朮등은 該 方法으로 處理한다.

㉤ 炒炭(炒黑) - 全體가 眞黑이 될 때까지, 但 가운데는 아직 黃褐色인 程度까지 볶는 事인데 이것을 炒存性이라고 한다. 地榆 荊芥등은 該 方法으로 處理한다.

十九. 烘 弱한 火로 藥物에 熱을 加하여 乾燥 시키는 方法의 하나, 烘은 藥物(菊花, 金銀花등)을 乾燥室 或은 乾燥箱에 넣고, 乾게 타지 않도록, 熱로 藥物을 乾燥 시키는 事이다 烘의 熱은 焙의 熱보다 조금 弱하게 한다

二十. 焙 . 弱한 火로 熱을 加하고 乾燥시키는 方法의 하나이다 焙는 藥物을 깨끗한 器와 위나, 火 燭에 넣고, 乾게 타지 않도록 乾燥시키는 事, 焙의 熱은 烘의 熱보다 조금 强하게 한다.

## □ 학 술

二一. 等分 : 모든 藥의 斤量의 多少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養性藥이나 補虛의 藥 등 緩方의 藥方은 모두 그러하다. 그러나 病을 다스리는 急方은 반듯이 君臣佐使를 나누어서 써야만 效가 좋은데 藥品數가 적은 것이 藥力이 專精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붙일 것은 加減法에 있어 加味藥은 君藥보다는 적은 分量으로 加味 한다는 것도 原典의 指示事項이니 留意 하여야 할 것이다.

炙와 炒 · 炙는 或種 (酒 鹽 醋 등) 의 補助劑를 加하여 마를 때까지 조리는 것이오, 炒는 補助劑 없이 或種의 藥物만 볶는 것이다. 現存의 醫藥書에서 醋炒 鹽炒라고 하는 것은 實際는 醋炙 鹽炙 酒炙라고 하여야 옳은 것이다. 水分 등 液體와 함께 조리거나 지지거나 하는 것은 炒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結 論

以上과 같이 韓藥의 基礎的인 用法과 炮炙(修治)法에 對해서 알아 보았다. 使用法이 잘못 되면 效果가 있기는 커녕 오히려 害를 볼 수도 있다고 古人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炮炙法 亦是 제대로 修治를 하지 아니 하면 갖고 있는 藥力을 專精化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效力은 없어 지거나 아주 떨어지게 된다

96年 여름 어느 날 慶南 慶山市에서 文化韓藥房을 運營하시는 金友永 선생이 激한 語調로 전화를 주었는데 말씀이 “至今 韓藥房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韓藥의 修治法에 對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 옛 聖人들께서 그렇게 精誠들여 修治法의 必要性을 指示하였는데도 外面하고 있으니 제대로 效果가 나겠느냐. 이렇게 藥을 짓는다면 罪를 짓는다 修治法에 對해서 글을 써 달라”는 것이다. 나이가 八旬이 가까워 오는 老先生께서 오직 하면 長距離 電話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과 더불어 내 自身을 돌아 보게 되었다 내 자신은 얼마나 誠心誠意, 患者의 立場에 서서 藥을 지어 주었고 그 苦痛을 함께 했느냐 하는 罪責感 같은 心情을 어찌지 못했다

本稿의 主題를 韓藥의 基礎的인 使用法과 修治法에 對해서 復習하는 心情으로 이 原稿를 마련한 것은 金先生의 忠告에 對한 報答의 意味도 包含되었음을 밝혀 둔다.

修治法을 無視해도 治療를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反論을 提起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개를 볶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개의 成分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 개의 高소하고 향기로운 맛은 어디서도 맛보지는 못할 것이다 개의 藥力이 그 高소하고 향기로운 맛에서 나온다고 假定 했을때 그 개에는 이미 藥效가 없어져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可能한 한 바른 修治法을 알아서 實行에 옮김으로서 仁術의 使命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